

2012년 6월 개정판

〈발췌번역본〉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1320-12-342-5822
GRANAT, BOMBLET, 155 mm, DM662,
HLA-SPR

LOT RHU98H7501

ENHETSLAST-DATA:

FARECODE:	1.1 D	VEKT:	396 kg
EFF.NEI:	28 kg	VOLUM:	0.26 m ³
TOT.NEI:	28 kg	L:	0.74 m
ANT.KOLLI:	1 stk	B:	0.37 m
ANT.ENH:	8 stk	H:	0.97 m


**IKV PAX
CHRISTI**

FAIRFIN
more than money

2012년 6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2012년 6월 개정판 발췌번역본

번역: 무기제로

*이 문서는 IKV 팩스크리스티와 페어핀이 발표한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2012년 6월 개정판 중 요약보고서와 요약도표를 전문 번역하고 제 1장 수치의 전당 Hall of Shame에 포함된 한국 기업 관련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웹사이트 <http://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요약보고서

IKV 팩스크리스티^{Pax Christi}(네덜란드)와 페어핀^{FairFin}(벨기에, 구 네트워크 플렌데런)¹이 「확산탄 세계 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2009년 10월이었다.ⁱ 이 보고서는 확산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신 현황을 다룬 보고서였다. 최신 현황을 반영한 개정판 보고서가 각각 2010년 4월, 2011년 5월ⁱⁱ에 발표된 바 있었다. 2012년 6월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한 것이다.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다. 총 94개국이 2008년 12월 3 ~ 4일 개최된 오슬로 조인식에서 협약에 서명했으며 협약은 2010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확산탄금지협약 제1조 제1(c)항은 "각 당사국은 누구에게도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이 자체 정책문서ⁱⁱⁱ에서 밝힌 바 있듯이, 확산탄의 생산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원조", "장려"에 해당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당사국의 협약 이행이 자동적으로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확산탄 금지를 향한 절차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 협약에 서명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자국 이행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미 협약 이행에 들어갔다.

확산탄금지협약 서명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무차별적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데 반드시 확산탄금지협약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2008년 5월 협약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 확산탄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시켰지만, 여타 금융기관들은 무차별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생산을 계속 지원해왔다.

"각 당사국은
누구에게도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확산탄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해 공개된 공식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까닭에 이 보고서는 이 부분 관련 정보를 전부 망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각 장 첫머리와 요약보고서에 우리가 수행한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이 각 국가, 금융기관, 시민사회를 자극해, '확산탄이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인도적 피해 종식'이라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09년 10월에 이 보고서 초판이 발행된 이후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시민사회가 금융기관 및 정부 관료들과 연계해 투자철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부 경우 금융기관

¹ 2012년 3월, 네트워크 플렌데런^{Netwerk Vlaanderen}은 단체명을 페어핀^{FairFin}으로 변경했다. <http://www.fairfin.be> 참조.

이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으며, 국가가 나서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에 대한 법률을 채택하기도 했다.^{iv}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2006년, 핸드캡인터내셔널은 모든 확산탄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v 확산탄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법률에 확산탄금지협약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확산탄 투자를 철회할 도의적인 의무를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세계적 비난의 대상인 무차별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세계적 비난의 대상인 무차별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이다."

더블린에서 확산탄금지협약의 문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목록은 이 보고서의 첫 장의 "수치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치의 전당 Hall of Shame

수치의 전당 Hall of Shame에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첫 단계는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업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조사 기관인 *프로펀도* Profundo는 NGO 보고서,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투자배제 대상 목록, 생산 기업의 보고서, 미국 정부와의 계약 내용,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연락 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참조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록 중에서 우리는 우리 연구 목적으로 적용할 최종 목록을 선별했다. 우리는 이 목록을 "요주의 기업 목록 Red Flag List"이라고 부른다. 이 "요주의 기업 목록"에 모든 확산탄 생산 기업이 포함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이 명단에는 제1장에 나열한 기준들을 만족시키며 명확히 식별 가능한 금전적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만 포함되었다. 2009년 10월 당시에는 8개 기업이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vi} 그 이후 그 중 2개의 기업이 확산탄 (부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vii} 2011년 개정판 보고서에는 2개의 기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요주의 기업 목록"은 지난 해와 동일하다.

우리는 투자자를 확산탄 제조업체와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관계 없이 모든 재정적 연계를 투자로 간주한다.

- 투자자가 생각하는 확산탄 생산 기업의 비중
- 투자 포트폴리오상의 투자 중요도
- 기업의 매출에 확산탄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 확산탄 생산 기업의 그외 활동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기 생산 기업의 경우 일반 회사 자본에서 확산탄 생산 설비 자금을 대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확산탄 생산 설비에 특정한 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발견한 적이 없었다. 기업이 그들 내의 자본금을 합법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일반적인 기업 대부 계약 내용에 대부 받거나 투자 받은 자금을 확산탄 생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금융지원 받은 자금을 민간(비군사)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자금이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과 금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금융기관 137곳의 전체 명단은 요약 도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표에는 이 금융기관들이 생산 기업들과 맺고 있는 금융 관계의 종류들이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조사 기관인 프로판도는 주식 거래 기록, 금융기관 및 확산탄 생산 기업의 출간 자료,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얻은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했다.²

2011 수치의 전당에는 164개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116개 금융기관은 2012 수치의 전당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48개 기관은 제외되었다. 2012 수치의 전당에 포함된 116개 금융기관 중 8개는 모 기업의 이름을 표시했다.³ 8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이미 기존 명단에 있던 모 기업의 명칭으로 통합해 표시했다. 2012 수치의 전당에 기록된 114개 금융기관은 요주의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 이상과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다.

수치의 전당에서 제외된 48개 금융기관은 다음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2011년 요주의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 이상의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했던 37개 금융기관의 경우, 2012년 투자 금액이 미국 기업의 경우 1% 미만, 아시아 기업의 경우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은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일부 매도했을 뿐이며 우리 기준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주식이나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 11개 금융기관의 경우 요주의 기업 명단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대출, 투자금융 형태의)이 2009년 5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2012 수치의 전당에서 제외되었다. 2009년 5월 이후로 이 금융기관들은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추가적으로 금융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없다.

2012 수치의 전당에는 137개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2011 수치의 전당에 포함되었던 기존 114개 금융기관 이외에 23개 기관이 새롭게 진입한 것이다.

2012 수치의 전당에 신규 추가된 23개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 이상에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 2011년 보고서 출판 이후 대출 또는 투자금융 서비스 제공
- 새롭게 주식 취득
- 2011년 채권 보유
-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식이나 채권 보유량의 비율이 미국 기업 기준 1%, 아시아 기업 기준 0.1% 이상으로 상승.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수치의 전당에 포함된 137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8개 확산탄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미화 약 43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다.

1. 미화 41억 달러 가량의 대출금 제공
2. 미화 81억 달러 가량의 투자금융 서비스 제공
3. 미화 304억 달러 가량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또는 관리

² 미국 기업의 주식 거래 기록은 대부분 10K-Wizard에서 참고한 것이다. 10K-Wizard는 무료 애드거 데이터베이스가 상용화 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각 기업이 제출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톰슨 ONE 데이터베이스와 EuroWeek의 기록들, 기타 업계지도 참고했다.

³ 아카디안(올드뮤추얼 계열사), 중국증권(CITIC 증권 계열사), 나티시스(BPCE 그룹 계열사), 하이투자증권(현대중공업 계열사), 국민은행(KB금융그룹 계열사), 메사추세츠 파인 그룹 및 메사추세츠 뮤추얼(메사추세츠뮤추얼금융그룹 계열사), MFS투자관리(썬 라이프 금융서비스 계열사)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및 명예의 전당 후보^{runners-up}

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에 초점을 맞춘 명예의 전당 부분이다. 확산탄금지협약이 서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정책을 수정했다. 확산탄에 대한 정책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을 찾아내기 위해 *페어핀*은 NGO 보고서, 사전조사^{screening} 에이전시가 제공한 정보, 금융기관의 보고서 및 홈페이지, 세계 각국 활동가들로부터 얻은 정보, 기타 공공 자료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조사했다. 투자정책은 은행 그룹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룹이 직·간접적으로 자회사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의 정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의 목록은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환영한다.

연구 결과, 공개 도메인에서 영어/네덜란드어로 작성된 56개 금융기관의 확산탄 관련 정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경우, 공개 도메인에 있는 투자철회 정책의 번역본을 받아 볼 수도 있었다. 이 56개 금융기관 중 27개가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었다. 이 27개 금융기관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했다. 요약 도표에 이 기관들에 대한 개괄적 정보가 들어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56개 금융기관 중 나머지 29개는 확산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허점들이 존재했다. 우리는 *명예의 전당 후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일부 미비점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높이 사지만, 아직 이들이 명예에 전당에 오르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예의 전당 후보들의 주된 미비점들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의 직접 개입만을 고려, 제3자 개입에 의한 투자활동 제외
- 민간 목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외
- 인덱스 펀드 제외

이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슬로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을 당시 단지 소수의 금융기관들만이 확산탄 생산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확산탄 생산 기업과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노베티(Novethic)*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기업⁴ 중 거의 80%가 논란이 되는 무기에 대한 투자를 평판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viii} *노베티*가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논란이 되는 무기(대인지뢰 및 확산탄)에 투자를 제외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ix}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은 본 보고서의 "명예의 전당"과 "명예의 전당 후보"에 반영되어 있다. 지난 3년간의 연구와 세계 곳곳의 캠페인으로 인해 이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행, 소규모 연금기금,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만이 아니다. *BNP 파리바*, *HSBC*,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의 세계적인 금융 기업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만 확산탄 투자 금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들의 정책은 일반적 기업 목적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부해준 자금이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이상, 이들의 정책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룹 내에서 자기 자본을 합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막을

⁴ 11개 유럽 국가에 걸친 자산보유자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투자 관리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259명의 응답자들은 공공/민간, 법인/비법인 모두를 포함해 개인 보험업자, 상호보험 회사 및 연금기금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 표본들의 자산 총계는 모두 약 4조 5천 4백억 유로에 달한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기관들은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진행했다. 우리는 이들이 첫 발걸음을 댄 것을 환영하며 자사의 투자 대상에서 확산탄 생산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것을 권고한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4개 금융기관이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진입했다. 이 중 두 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들로, 호주 미래기금과 룩셈부르크 보상기금(본 보고서 2.1.5 및 2.1.4 참조)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 보고서에서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되었던 웨스트LB의 경우는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었다. 우리는 웨스트LB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들의 이 같은 결단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정책을 수정해 확산탄 투자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준다. 이번 보고서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추가된 마지막 금융기관은 네덜란드 보험사인 SNS REAAL이다. 기존 명예의 전당에 있던 금융기관 중 에티아스(Ethias)는 은행과 보험 업무를 같이 하는 회사였다. 2011년 은행 사업 부문이 매각되면서 현재 명예의 전당에 포함된 에티아스는 보험 사업 부문만을 다루는 기업으로 상태가 변동되었다. 에티아스 은행을 매각한 곳은 옴티마 은행이었다. 옴티마 은행은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 배제를 규정한 에티아스 은행의 기존 윤리 규정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 보고서 발간시에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보고서 발간 이후 6개 금융기관이 새롭게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되었다. 2011년 보고서에서 인테사 상파올로(이탈리아)는 확산탄 생산 목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말, 인테사 상파올로는 대부 및 투자은행 활동 대상에서도 확산탄 생산 기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큰 진전이며, 우리는 인테사 상파올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것을 높이 사고 있다. 나머지 5개 금융기관은 이전에 투자철회 정책을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적절한 정책이 없거나, 혹 그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공개된 바가 없는 경우에 속했던 기관들이었다. 이 중 3곳은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로이드 뱅킹 그룹, 아비바 등 영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이었으며, 나머지 2곳은 소시에테 제네랄(프랑스), 아에곤(네덜란드)이다. 기존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기관 중 2개가 회사명을 변경했다. 아크조 노벨 연금기금은 스티칭 연금기금 APF로, 텍시아는 벨파우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에 이미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올랐던 금융기관 4개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은 비록 자사 정책을 상당부분 개선했지만 아직은 명예의 전당 후보에 남아있다. 아베엔ABN 암로(네덜란드), BBVA(스페인), 협동조합금융서비스(영국), HSBC(영국)는 모두 자사 정책에 긍정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이들이 명예의 전당 입성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정비되어야 할 정책상 허점들이 일부 존재한다. 우리는 위 금융기관들이 이른 시일 내 자사 정책을 수정해 내년도 보고서 발간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인식 증진 및 투명성 개선

2009년 10월에 첫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로 우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국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9년 10월, 확산탄금지연합은 "확산탄 투자철회(Stop Explosive Investments)"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촉구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은 금융기관들에게 확산탄과 관련한 명확한 윤리 투자 지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각국 정부에는 확산탄 투자 금지 법률 입안을 요구했다. 캠페인 출범 이후 18개국 이상에서 투자철회 캠페인이 진행됐다.⁵

이러한 캠페인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들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이들의 투자철회 정책에 대한 설명이 늘어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캠페인은 투자철회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자극했다. 세계 곳곳의 캠페인, 회담, 연구, 언론 보도 등으로 이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풍부하도록 증가했으며, 무기 생산 기업들의 투명성이 증대되기도 했다.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문제를 의식함에 따라 우리 질의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 연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⁵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하라. <http://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

활발한 캠페인 활동들

2012년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금융기관들을 훑어보면 강력한 투자철회 캠페인이 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 아비바, 로이드 बैं킹 그룹이 모두 2011년에 수정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명예의 전당 후보 그룹에 포함되었다. 협동조합금융서비스의 경우는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는 활동가들이 도이체뱅크에 집중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이체뱅크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그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고객들이 자신들이 가진 투자 옵션을 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더구나 페이싱파이낸스(Facing Finance)가 수행한 심층 연구⁶와 본 보고서 수치의 전당에 따르면 도이체뱅크는 여전히 확산탄 생산 기업과 상당 수준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도이체뱅크의 자회사인 DWS의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확산탄 생산 기업을 제외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DWS의 모회사인 도이체뱅크 역시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 바이에른LB의 자산운용사 바이에른인베스트와 란데스뱅크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자산운용사인 LBBW 자산운용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공개했다. 우리 연구에서는 그룹 차원의 정책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바이에른LB와 란데스뱅크 바덴-뷔르템베르크가 자회사의 모범을 따라 확산탄 생산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데카 은행은 자사가 제공하는 일부 펀드에서 확산탄 생산 기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그 같은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우리는 데카 은행이 그 같은 결정을 바꿔서 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우리 보고서에 담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웨스트LB는 자사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이번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캠페인이 BBVA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은행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입장을 상당히 강화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수년 동안 캠페인 활동가들이 확산탄 문제에 대한 대중과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8월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었을 당시 몇몇 국회의원들이 보상기금(Compensation Fund)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룩셈부르크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로써 보상기금이 자사 투자포트폴리오에서 해당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캠페인의 결과로 미즈호 은행과 도쿄 미즈비시 UFJ이 자사 정책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우리는 그 같은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들의 정책이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 기준에 미달해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 보고서 발간 시점에는 이 은행들이 자사 정책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국가별 모범사례

확산탄금지연합은 확산탄금지협약 상의 원조 금지 규정이 확산탄 투자 금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⁶ 점차 많은 수의 국가들이 협약이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2011년 보고서 발간 이후 또 하나의 국가(이탈리아)가 확산탄 생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메룬, 체코공화국, 헝가리, 라오스, 세네갈, 슬로베니아 이상 7개국이 협약이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해석 성명(interpretive statement)을 발표했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의 입법 사례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의 서명국, 당사국, 비당사국 모두가 국내법으로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를 금지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⁶ 확산탄금지연합, "CMC Policy Papers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2010년 5월,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0/06/3a-cmc-policy-papers.pdf>, 2012년 5월 12일 확인. .

보고서 작성 시점인 지금,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모두 5개국이 확산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아직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확산탄금지협약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국가도 총 21개국이다.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메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과테말라, 교황청, 헝가리, 라 오스,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타, 멕시코, 르완다, 세네갈, 슬로베니아, 영국, 잠비아 이상 21개국은 모두 (직접적인) 투자를 확산탄금지협약 상 금지된 행위인 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확산탄 투자 금지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확산탄금지협약 제1조1항(c)에 확산탄 투자 금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의 입법 사례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의 서명국, 당사국, 비당사국 모두가 국내법으로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 금지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사항

-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협약의 제1조1항(c)에 따른 원조 금지로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국가들은 금융기관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입안할 때 각국은 확산탄금지협약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과의 모든 재정적 연계를 끊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투자가 확산탄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확산탄 생산 기업의 민수 목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덱스펀드와 같은 제3자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어떠한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 정책은 확산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거절토록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 중단 결정의 이유가 확산탄 때문이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 기업이 투자 철회 결정을 반복시키기 희망하는 경우 확산탄 생산을 중단할 시한을 정해줄 수도 있다. 시한을 넘겨서 여전히 확산탄을 생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이 확산탄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확산탄 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는 모든 신규 투자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투자 철회 정책을 상업은행 업무, 투자은행 업무, 자산운용 등 모든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활동은 확산탄의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활동으로 투자 펀드 운용 상의 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자들이 이를 고지 받아야 하며 펀드 투자 중단 시한이 주어져야 한다. 시한 이후에는 운용 전략을 변경하고 확산탄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과 채무는 매각되어야 한다.

2. 요약 도표

수치의 전당 Hall of Shame

다음의 표는 금융기관들이 요주의 기업 명단(red flag list)에 올라온 확산탄 생산기업들과의 금융적 관계의 유형을 나타낸다.

B: (전환) 사채의 보유 혹은 운용 / L: 대출편의 제공 / S: 주식의 보유 혹은 운용 / X: 발행된 주식의 인수 / Y: 발행된 채권의 인수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아베르딘 자산운용 Aberdeen Asset Management	영국						S		
중국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				Y				
AIG	미국			B					
알리안츠 Allianz	독일	B, S		S					
올스테이트 Allstate	미국	B		B					
아메리칸 패밀리 인슈어런스 American Family Insurance	미국						B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Ameriprise Financial	미국	B		S					
ANZ 은행 ANZ Bank	호주			L, Y					
APS 자산운용 APS Asset Management	싱가 포르					S			
아론슨 존슨 오티즈 (AJO) Aronson + Jonson + Ortiz	미국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악사 AXA	프랑스	B				S	B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Bank of America	미국	L, Y		L, Y					L, Y
북경은행 Bank of Beijing	중국				Y				
중국은행 Bank of China	중국				Y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	중국				Y				
뱅크 오브 뉴욕 멜론 (BNY멜론) Bank of New York Mellon	미국	L							L, Y, S
상하이은행 Bank of Shanghai	중국				Y				
바클레이스 Barclays	영국			L					X, Y
비비엔티 은행 BB&T	미국	L							
블랙록 BlackRock	미국	S	S	S					S
BNP 파리바 BNP Paribas	프랑스	L		Y		S			Y
BPCE	프랑스								B
브리덴 캐피탈 매니지먼트 Breedon Capital Management	미국	S							
캐피탈 그룹 Capital Group	미국			S			S		S
캐슬 크릭 아비트라지 Castle Creek Arbitrage	미국	B							
창화상업은행 Chang Hwa Commercial Bank	대만	L							
중국건설은행 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				Y				
국가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중국				Y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중국광대은행 China Everbright Bank	중국				Y				
중국초상은행 China Merchants Bank	중국				Y				
중국민생은행 China Minsheng Bank	중국				Y				
시타델 Citadel	미국	B							
중신증권 CITIC Securities	중국				Y				
시티그룹 Citigroup	미국			L, Y					L, Y
칸서스자산운용 Consus Asset Management	한국					S			
컨티넨탈보험 Continental Insurance	미국								B
크레디 아그리콜 Crédit Agricole	프랑스			L, Y					Y
크레디트 스위스 Credit Suisse	스위스						B		
대우증권 Daewoo Securities	한국		Y						
데이비스 셀렉티드 어드바이저스 Davis Selected Advisers	미국			S					
DBS은행 DBS Bank	싱가 포르			L					
도이체방크 Deutsche Bank	독일	S					Y		L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스 (DFA)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S			S			
동부증권 Dongbu Securities	한국		Y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드레먼 벨류 매니지먼트 Dreman Value Management	미국	S							
유진투자증권 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한국		Y						
한국수출입은행 Export Import Bank of Korea	한국					L			
피델리티 Fidelity	미국	S, B		S		S	B		S
피듀시어리 매니지먼트 Fiduciary Management	미국	S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미국	S		S					
퍼스트 파이낸셜 First Financial	대만	L							
프랭클린 템플턴 Franklin Templeton	미국					S			S
제너럴 일렉트릭 (GE) General Electric	미국	L							
젠워스 파이낸셜 (GNW) Genworth Financial	미국			B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미국			L, Y					L, S, Y
그랜탐 메이요 반 오텔루 (GMO)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미국		S				S		
구오타이 주난 증권 Guotai Junan Securities	중국				Y				
하나금융 Hana Financial	한국		L, Y						
한양증권 Hanyang Securities	한국		Y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한화증권 Hanwha Securities	한국		S, Y						
'하트포드 파이낸셜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미국			B					B
호치키스 앤 와일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Hotchkis & Wiley Capital Management	미국	S		S					
후아난 파이낸셜 Hua Nan Financial	대만	L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한국		Y			S			
중국산업은행 Industrial Bank	중국				Y				
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중국				Y				
인테사 상파올로 Intesa Sanpaolo	이탈 리아			Y					
인베스코 Invesco	영국	S					S		S
잭슨국민생명보험 Jackson National Life Insurance	미국			B					
JP 모건 체이스 JP Morgan Chase	미국	B, L, S		L, Y					L, X, Y
KB금융 KB Financial	한국		L, S, Y						
키뱅크 Keybank	미국	L							
한국산업은행 Korea Development Bank	한국		Y			L, Y			
한국투자금융지주 Korea Investment	한국		Y			S			
리버티 뮤추얼 Liberty Mutual	미국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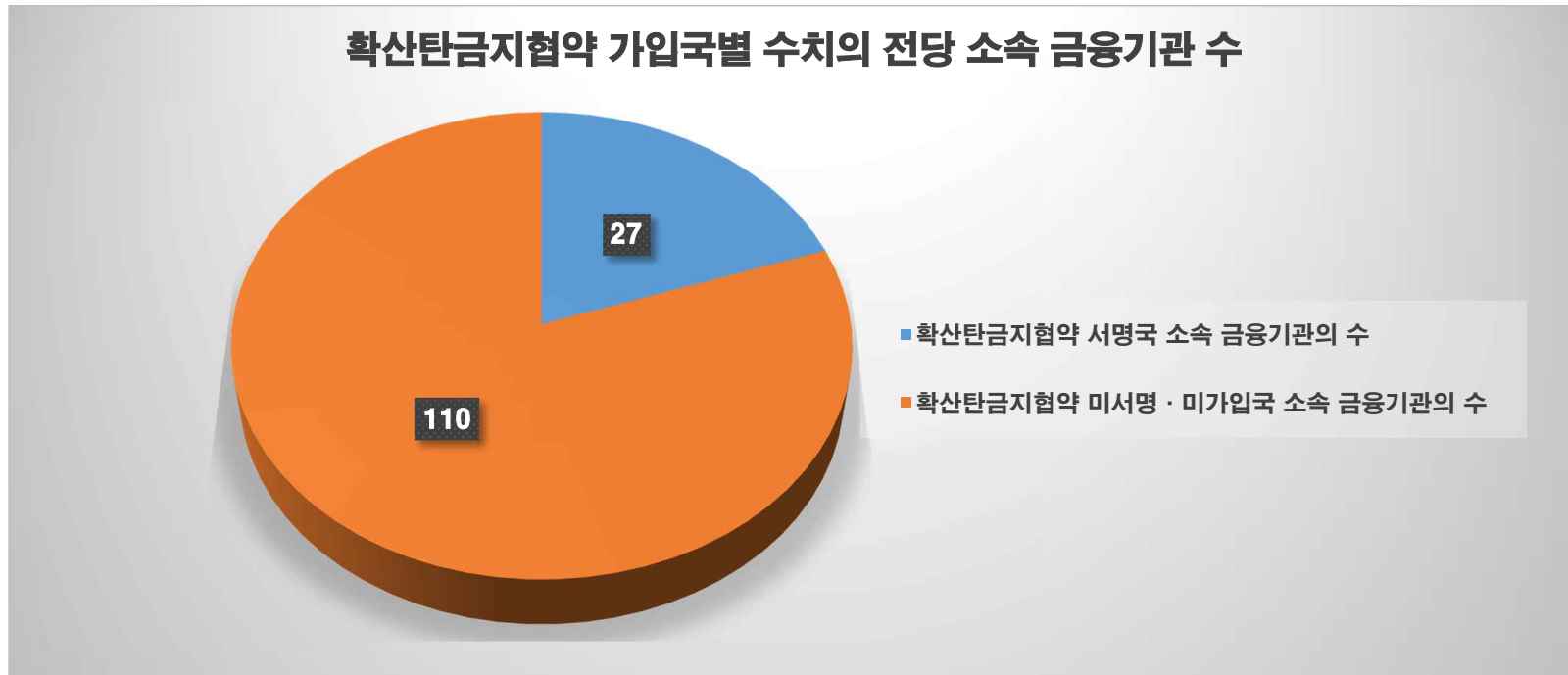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리히텐슈타이니세 란데스은행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LLB)	리히텐 슈타인						B		
링컨 파이낸셜 Lincoln Financial	미국			B					
로이드 बैंकिंग Lloyds Banking	영국			L, Y					
매뉴라이프 파이내셜 Manulife Financial	캐나다			B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미국	B		B					B
매슈스 인터내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 Matthews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미국					S	S		
멜론 캐피탈 매니지먼트 Mellon Capital Management	미국					S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Metropolitan Life Insurance	미국	B		B					
미래에셋금융그룹 Mirae Asset Financial	한국		S			S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 Mitsubishi UFJ Financial	일본	L, Y		L, Y					L, Y
미즈호 은행 Mizuho Bank	일본	L		L, Y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	미국			L, Y			Y		L, Y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한국		S			S			
뉴욕생명보험 New York Life Insurance	미국	B		B					
노스이스트 인베스터 트러스트 Northeast Investors Trust	미국	B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노던 트러스트 Northern Trust	미국			L, S					L, S
노스웨스턴 뮤추얼 Northwestern Mutual	미국			B					
누빈 인베스트먼트 Nuveen Investments	미국	S							
오크지프 캐피탈 매니지먼트 Och-Ziff Capital Management	미국								B
옥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Oaktree Capital Management	미국	B							
올드 뮤추얼 Old Mutual	영국		S						
중국인민보험공사 (PICC) People's Insurance Company (Group) of China	중국				Y				
피플스 유나이티드 파이낸셜 People's United Financial	미국	L							
PNC 파이낸셜 PNC Financial	미국	L							
프린시플 파이낸셜 Principal Financial	미국		B						
푸르덴셜 Prudential	영국								S
푸르덴셜 파이낸셜 Prudential Financial	미국	B		B					B
리야드은행 Riyadh Bank	사우디 아라비 아			L					
캐나다왕립은행(RBC은행)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L, Y		L, Y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L, B, Y		L, Y					
삼성 Samsung	한국		S, Y			S			
스베르은행 Sberbank	러시아							L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영국						S		
상하이푸둥개발은행 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	중국				Y				
신한은행 Shinhan Bank	한국		Y			Y			
신영증권 Shinyoung Securities	한국					S			
SK증권 SK Securities	한국		Y			Y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S, Y
스테이트 팜 State Farm	미국			B					
스테이트 스트리트 State Street	미국	S	S	L, S		S			S
스미토모 미츠이 Sumitomo Mitsui	일본			L, Y					Y
선 라이프 파이낸셜 Sun Life Financial	캐나다			S					B
선트러스트뱅크 SunTrust Bank	미국	L, Y							
시메트라생명보험 Symetra Life Insurance	미국			B					
티로우 프라이스 . Rowe Price	미국			S					S
교사보험연금협회 (TIAA-CREF) Teachers Insurance & Annuity Association	미국	B	S	B		S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한화 Hanwha (한국)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미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스플라프 Splav (러시아)	텍스트론 Textron (미국)
테마섹 Temasek	싱가포르						S		
동양증권 TongYang Securities	한국		B, Y			S, B			
트러스톤 자산운용 Truston Asset Management	한국					S			
UBS	스위스		B	L, Y		B			S
유나이티드 오버시 बैं크 (UOB) United Overseas Bank	싱가포르	L							
유넘 프로비던트 Unum	미국	B							
US뱅크 US Bancorp	미국	L, Y		L, Y					
벵가드 그룹 Vanguard	미국	S	S	B, S		S	S		S
베리타스 자산운용 Veritas Asset Management	미국						S		
웰링턴 매니지먼트 컴퍼니 Wellington Management Company	미국			S					
웰스 파고 बैं크 Wells Fargo Bank	미국	B, L, Y		L, Y		S			Y
웨스턴 앤 서던 뮤추얼 Western & Southern Mutual	미국	S							
윌리엄스 캐피탈 Williams Capital	미국								Y
우리금융 Woori Financial	한국		S, Y			L, Y			
유리 자산운용 Yurie Asset Management	한국					S			
Zazove Associates	미국	B							B

-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들(FIs) 중 27개는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110개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



- 국가별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국가명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합계
금융기관 수	1	3	16	5	2	1	3	1	1	1	4	22	2	3	9	63	137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다음의 표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명예의 전당에 오른 모든 금융기관들을 간략한 나타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어떤 유형이든 예외 없이)	그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는가?	모든 기업 활동이 제외되었나?
공적연금 ABP	네덜란드	○	○	○	○	○
ASN 은행 ASN Bank	네덜란드	○	○	○	○	○
ATP	덴마크	○	○	○	○	○
방카 에티카 (윤리은행) Banca Etica	이탈리아	○	○	○	○	○
BPF 보우 BPF Bouw	네덜란드	○	○	○	○	○
DNB	노르웨이	○	○	○	○	○
에티아스 Ethias	벨기에	○	○	○	○	○
보상기금 Fonds de Compensation	룩셈부르크	○	○	○	○	○
미래기금 The Future Fund	호주	○	○	○	○	○
KLP	노르웨이	○	○	○	○	○
KPA	스웨덴	○	○	○	○	○
국민연금준비기금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아일랜드	○	○	○	○	○
뉴질랜드연기금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정부연기금 - 글로벌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노르웨이	○	○	○	○	○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어떤 유형이든 예외 없이)	그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는가?	모든 기업 활동이 제외되었나?
교통연금기금 Pensioenfonds Vervoer	네덜란드	○	○	○	○	○
PGGM	네덜란드	○	○	○	○	○
필립스연금기금 Philips Pension Fund	네덜란드	○	○	○	○	○
PME	네덜란드	○	○	○	○	○
PNO 미디어 PNO Media	네덜란드	○	○	○	○	○
SNS 레알 SNS REAAL	네덜란드	○	○	○	○	○
철도연금기금 Spoorwegpensioenfonds	네덜란드	○	○	○	○	○
스토어브랜드 그룹 Storebrand Group	노르웨이	○	○	○	○	○
스웨덴연금기금 AP1-4 Swedish Pension Funds AP1 - 4	스웨덴	○	○	○	○	○
스웨덴연금기금 AP7 Swedish Pension Fund AP7	스웨덴	○	○	○	○	○
트리오도스 은행 Triodos Bank	네덜란드	○	○	○	○	○
웨스트 엘비 West LB	독일	○	○	○	○	○

나라	호주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합계
금융기관 수	1	1	1	1	1	1	1	1	4	4	11	27

명예의 전당 후보 Runners-up

명예의 전당 후보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어떤 유형이든 예외 없이)	그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는가?	모든 기업 활동이 제외되었나?
아베엔 암로 ABN Amro	네덜란드	○	○	○		○
아에곤 AEGON	네덜란드	○	○	○		○
아비바 Aviva	영국	○	○	○		○
악사 AXA	프랑스	○	○	○		○
BBVA	스페인	○	○	○		○
벨피우스 은행 보험 Belfius Bank and Insurances	벨기에		○	○		○
BNP 파리바 BNP Paribas	프랑스	○	○	○		○
코메르츠뱅크(상업은행) Commerzbank	독일	○	○	○		○
협동조합 금융서비스 Co-operative Financial Services	영국	○	○	○		○
크레디 아그리콜 Crédit Agricole	프랑스	○	○	○		○
크레디트 스위스 Credit Suisse	스위스	○	○	○		○
단스케 은행 Danske Bank	덴마크	○	○	○		○
HSBC	영국	○	○	○		○
ING	네덜란드	○	○	○		○
인테사 상파올로 Intesa Sanpaolo	이탈리아	○	○	○		○
KBC	벨기에	○	○	○		○
의사연금기금 Laegernes Pensionskasse	덴마크	○	○	○		○
로이드 बैं킹 그룹 Lloyds Banking Group	영국		○	○		○
노디어 은행 Nordea	스웨덴	○	○	○		○

명예의 전당 후보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가? (어떤 유형이든 예외 없이)	그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는가?	모든 기업 활동이 제외되었나?
Nycredit	덴마크					
호레카 케이터링 연기금 Pensioenfonds Horeca & Catering	네덜란드	○	○	○		○
라보뱅크 Rabobank	네덜란드	○	○	○		○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	○	○		○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	○	○		○
SEB	스웨덴	○	○	○		○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	○	○		○
스티칭 연기금 APF Stichting Pensioenfonds APF	네덜란드	○	○	○		○
아흐메아 Syntrus Achmea	네덜란드	○	○	○	○	○
유니크레딧 UniCredit Group	이탈리아	○	○	○	○	○

나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합계
금융기관 수	2	1	3	4	1	2	1	2	1	7	5	29

국가별 모범사례 Countries' Best Practices

법률 제정	해석 성명	입법 활동/법률 초안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
아일랜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카메룬	스위스
뉴질랜드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과테말라	
	교황청	
	헝가리	
	라오스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타	
	멕시코	
	르완다	
	세네갈	
	슬로베니아	
	영국	
	잠비아	

3. 요주의기업목록 Red Flag List 에 포함된 8 대 확산탄 생산기업 중 한국 기업 관련 부분

확산탄 생산기업의 정의

- 확산탄금지협약 상에 규정된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모든 기업이나 그룹으로 자사 명의로 혹은 자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
- 확산탄금지협약 상에 규정된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의 핵심 부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모든 기업 또는 그룹으로 자사 명의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 핵심 부품은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의 필수 불가결한 속성을 떠는 부품을 의미한다.

(주)한화

1952 년 화약류 생산 기업(한국화약주식회사)으로 출발한 한화는 화약 산업 생산 및 건설, 무역, 기계, 제약, 금융, 레저 등을 아우르는 세계적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했다. 한화는 1974 년에 공식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군수품을 전문으로 생산했다. 군수품 제작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으며 한국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다.

한화는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MPSM)을 생산한다. 이는 2007 년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에 답변한 확산탄 제조에 관한 한화의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 년 2 월, 한화는 홈페이지를 통해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과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을 광고하고 있다. 한화 홈페이지에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이 “넓은 지역에 걸쳐 집중된 적의 진지에 다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은 “HE MPSM K224 탄두에 사람, 물건, 경량장갑에 사용할 수 있는 9 개의 다목적소폭탄이 각각 들어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011 년 1 월,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은 여전히 한화 웹사이트에 나와 있었지만,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은 없어졌다. 웹사이트에는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을 “헬리콥터와 제트기를 사용하는 공대지 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2 년 3 월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과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 모두가 한화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2011 년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과 페이스파이낸스(Facing Finance)의 조사는 한화가 여전히 2.75 인치 소폭탄과 소폭탄이 들어있는 120mm 박격포탄(mortar bomb)을 2011 년 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에서 전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산탄에 사용되는 기계식신관(mechanical fuze) M577A1 과 전자식근접신관(electronic proximity fuze) M73 모두 2012 년 3 월 한화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다.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과 2.75 인치 다목적소폭탄뿐만 아니라 2010 년 2 월에는 소위 항공기용 살포식 폭탄을 웹사이트에 언급했다. 이는 항공기에 부착되며 “밀집된 적의 진지와 지상 부대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연금기금 윤리위원회는 이 무기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는 애초에 한화가 연금기금 투자대상으로부터 배제 당하게 된 원인이었던 바로 그 범주의 확산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1 년 1 월, 이러한 종류의 확산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한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한화는 2008 년 5 월부터 웹사이트에 다목적소폭탄을 마케팅하고 2011 년 2.75 인치 소폭탄과 소폭탄이 들어있는 120mm 박격포탄을 광고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지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다. 2008 년 5 월 이래로 이러한 유형의 소폭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주)풍산

한국의 선도적인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탄약을 개발한다. 한화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확산탄 생산 기업이다.

풍산은 DPICM TP/K308 과 DPICM K310 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155mm 포격용 확산탄을 생산해 왔다. 2011년 1월 현재 풍산 홈페이지에는 K310은 더 이상 생산품 목록에 보이지 않지만 K308은 여전히 광고되어 있다.

2011년 1월, 풍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DPICM TP/K308이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155mm 포격용 포탄으로, 확산탄인 작은 폭발성 소폭탄인 소형 폭탄 88 개가 들어있다. DPICM K308 과 K310 은 2012년 3월 현재 한국판 카탈로그에만 나와 있다. 핸드캡인터내셔널과 페이싱파이낸스의 IDEX 연구는 풍산이 여전히 K310 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풍산은 또한 파키스탄 최대 군수기업 피오에프(POF, Pakistan Ordnance Factories)와 공동으로 자기파괴 장치가 내장된 49 개 소폭탄이 들어있는 발사체인 DPICM K310 도 생산했다. 이것은 2008년 4월에 처음 제조되었다.

2009년 4월, 풍산은 155mm K310 의 새로운 비활성 부품을 피오에프 Sanjwal 공장으로 수출했다. 이러한 내용은 “155mm K310 Dummy Kit”와 “KM577 Dummy Metallic Fuze”에 관한 선적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제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월 풍산으로부터 또 다른 K310 포탄의 비활성 부품을 배송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선적서류에는 155mm K310 TP 발사체의 4 개 운반대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012년 3월 현재, K310 에 쓰인 155mm K221 소형폭탄은 풍산 웹사이트의 영문판 카탈로그 탄약 카테고리에 올라가 있다.

풍산의 자회사인 풍산 FNS 는 다양한 종류의 신관을 생산한다. 2012년 3월, 풍산 웹사이트에는 풍산 FNS 가 다연장로켓시스템을 생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풍산은 2008년 5월 이후 DPICM K310 과 TP/K308 확산탄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금지 대상 목록에 올랐다. 반면 2008년 5월 이래 이어한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회사는 이와 관련한 설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4. 요주의 기업 목록 Red Flag List 에 포함된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

칸서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자산운용)

2011년 12월 31일, 칸서스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풍산 주식의 0.14%를 보유 혹은 운용. 이는 미화 900,000 달러(약 10 억 원)에 상당함.

대우증권 (투자은행)

2011년 6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약 5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년 11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2008년 3월, 한화는 1,200 억 원 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그 중 미화 13,200,000 달러(약 150 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 억 원 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그 중 미화 16,350,000 달러(약 180 억 원)를 인수했음.

동부증권 (투자은행)

2011년 9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년 11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부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2009년 2월, 한화는 2,600 억 원 어치의 채권을 발행했고(700 억 원은 3년 만기, 1,400 억 원은 2년 반 만기, 500 억 원은 1년 만기 채권),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부증권은 그 중 미화 20,300,000 달러(약 220 억)를 인수했음.

유진투자증권 (투자은행)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 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그 중 미화 8,900,000 달러(약 100 억 원)를 인수했음.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2010 년 3 월, 풍산은 1 년 신용대출 500 억 원 확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전액을 제공했음.

하나금융

(대출)

2011 년 6 월, 한화는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년 12 월 만기의 신용대출 500 억 원 확보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투자은행)

2011 년 9 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투자자모집역할을 하는 공동주간사(joint bookrunner) 중 하나인 하나대투증권은 3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하나대투증권은 2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한양증권 (투자은행)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 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양증권은 그 중 200 억 원을 인수했음.

한화증권

(투자은행)

2010 년 5 월, 한화는 1,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6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0 년 8 월, 한화는 1,0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2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3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나증권은 3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자산운용)

2011 년 12 월 31 일부터 2012 년 3 월 6 일 사이 제출날짜에 한화증권은 한화 주식 0.31%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7,000,000 달러(약 70 억 원)에 상당한다.

현대중공업

(투자은행)

2010 년 8 월, 한화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현대중공업그룹 하이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자산운용)

2011 년 12 월 31 일,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을 통해 풍산 주식 0.45%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는데 이는 2,800,000 달러(약 30 억 원)에 상당한다.

KB 금융

(대출)

2010 년 12 월, 한화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 년 신용대출 800 억 원을 확보했다. 수익은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본(working capital)으로 사용되었다.

(투자은행)

2010 년 5 월, 한화는 1,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0 년 8 월, 한화는 1,0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2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6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투자증권은 사무간사회사(bookrunner)로 약 5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투자증권은 사무간사회사로 약 3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투자증권은 사무간사회사로 400 억 원을 인수했다.

(자산운용)

2012 년 2 월 29 일, KB 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1.53%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는데 이는 36,400,000 달러(약 390 억 원)에 상당한다.

한국산업은행

(대출)

2009 년 6 월, 풍산은 5 년 신용편의 25 억 원 확보,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9 년 9 월, 풍산은 5 년 신용편의 100 억 원 확보, 수익은 설비투자(capital expenditure)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9 년 10 월, 풍산은 5 년 만기 신용편의 132 억 원 확보, 수익은 설비투자(capital expenditure)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10 년 3 월, 풍산은 2 년 만기 신용편의 925 억 원 확보, 수익은 설비투자(capital expenditure)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투자은행)

2009 년 10 월, 풍산홀딩스는 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세 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미화 8,600,000 달러(약 180 억 원)를 인수했음.

2010 년 4 월, 풍산홀딩스는 7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5 월, 풍산홀딩스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3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6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약 5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5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2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은행)

2010 년 8 월, 한화는 1,0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자산운용)

2012 년 2 월 29 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7.59%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64,400,000 달러(약 690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2 월 31 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0.39% 또한 소유했는데 이는 600,000 달러(약 6 억 원)에 상당한다.

미래에셋금융 (자산운용)

2011 년 12 월 31 일부터 2012 년 2 월 29 일 사이 제출날짜에 미래에셋금융은 풍산 주식의 0.51%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3,590,000 달러(약 38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2 월 31 일부터 2012 년 2 월 29 일 사이 제출날짜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한화 주식의 0.13%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3,000,000 달러(약 32 억 원)에 상당한다.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2011 년 10 월 27 일, 국민연금공단은 한화 주식의 7.17%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191,300,000 달러(약 2,036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0 월 5 일, 국민연금공단은 풍산 주식의 8.20%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71,300,000 달러(약 759 억 원)에 상당한다.

삼성

(투자은행)

2010 년 8 월, 한화는 1,0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사무간사회사였던 삼성증권은 그중 4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삼성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자산운용)

2012 년 2 월 29 일, 삼성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0.32%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7,700,000 달러(약 82 억 원)에 상당한다.

2012 년 2 월 29 일, 삼성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1.40%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11,900,000 달러(약 127 억 원)에 상당한다.

신한은행 (투자은행)

2010 년 4 월, 풍산홀딩스는 7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5 월, 풍산홀딩스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2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신영증권 (자산운용)

2011 년 12 월 31 일, 신영증권은 풍산 주식의 1.04%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는데 이는 6,600,000 달러(약 70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2 월 31 일, 신영증권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3.85%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는데 이는 6,250,000 달러(약 67 억 원)에 상당한다.

SK 증권 (투자은행)

2009 년 10 월, 풍산홀딩스는 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을 이끈 SK 증권은 그중 미화 25,000,000 달러(약 275 억 원)를 인수했음.

2010 년 4 월, 풍산홀딩스는 7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SK 증권은 그중 3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0 년 5 월, 한화는 1,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사무간사회사였던 SK 증권은 그중 7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5 월, 풍산홀딩스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SK 증권은 300 억 원을 인수하였다.

동양증권

(투자은행)

2010 년 2 월, 한화는 1,0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유일한 사무간사회사였던 동양증권은 미화 86,100,000 달러(약 950 억 원)를 인수했음.

2010 년 5 월, 한화는 1,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양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

2010 년 8 월, 한화는 1,0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양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

(자산운용)

2011 년 9 월 30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 사이 제출날짜에 동양증권은 한화에서 발행한 기발행사채(outstanding bond)의 0.94%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16,700,000 달러(약 178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2 월 31 일, 동양증권은 풍산에서 발행한 기발행사채의 0.79%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2,600,000 달러(약 28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2 월 31 일, 동양증권은 풍산 주식의 0.27%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1,700,000 달러(약 18 억 원)에 상당한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자산운용)

2012 년 1 월 9 일, 트러스트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20%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고 이는 1,600,000 달러(약 17 억 원)에 상당한다.

우리금융

(대출)

2010 년 3 월, 풍산은 1 년 신용편의 100 억 원을 확보,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은행이 신용편의의 전액을 제공했음.

(투자은행)

2009 년 10 월, 풍산홀딩스는 5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세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8,600,000 달러(약 95 억 원)를 인수한 것으로 추산됨.

2010 년 4 월, 풍산홀딩스는 7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2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2 월, 한화는 1,100 억 원어치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음.

2011 년 5 월, 풍산홀딩스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2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6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5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9 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2011 년 11 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

(자산운용)

2012 년 2 월 29 일, 우리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0.10%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으며 이는 2,300,000 달러(약 24 억 원)에 상당한다.

유리자산운용 (자산운용)

2011 년 12 월 31 일, 유리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38%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으며 이는 2,400,000 달러(약 26 억 원)에 상당한다.

2011 년 12 월 31 일, 유리자산운용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1.00%를 보유 혹은 운용하였으며 이는 1,600,000 달러(약 17 억 원)에 상당한다.

※ 2011 년 보고서에 한화와 풍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던 국내투자사들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신그룹,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천안북일교육재단, HMC 투자은행, KTB 자산운용은 빠짐.

〈도표〉 한화, 풍산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목록

B: (전환)사채의 보유 혹은 운용 / L: 대출권의 제공 /
S: 주식의 보유 혹은 운용 / X: 발행된 주식의 인수 / Y: 발행된 채권의 인수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국가	한화	풍산
APS Asset Management	싱가폴		S
AXA	프랑스		S
BlackRock	미국	S	
BNP Paribas	프랑스		S
칸서스자산운용	한국		S
대우증권	한국	Y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S	S
동부증권	한국	Y	
유진투자증권	한국	Y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L
Fidelity	미국		S
Franklin Templeton	미국		S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미국	S	
하나금융	한국	L, Y	
한양증권	한국	Y	
한화증권	한국	S, Y	
현대중공업	한국	Y	S
KB 금융	한국	L, S, Y	
한국산업은행	한국	Y	L, Y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	Y	S
Matthews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미국		S
Mellon Capital Management	미국		S
미래에셋금융	한국	S	S
국민연금공단	한국	S	S
Old Mutual	영국	S	
삼성	한국	S, Y	S
신한은행	한국	Y	Y
신영증권	한국		S
SK 증권	한국	Y	Y
State Street	미국	S	S
Teachers Insurance & Annuity Association (TIAA-CREF)	미국	S	S
동양증권	한국	B, Y	S, B
트리스톤자산운용	한국		S
UBS	스위스	B	B
Vanguard	미국	S	S
Wells Fargo Bank	미국		S
우리금융	한국	S, Y	L, Y
유리자산운용	한국		S

미주

ⁱ IKV 팩스 크리스티, 네트워크 플란데른,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2009년 10월.

http://www.ikvpaxchristi.nl/UK/below_thematic_security_and_disarmament_cluster_munition_home_stop_explosive_investments.htm, 2012년 4월 24일 확인.

ⁱⁱ IKV 팩스 크리스티, 네트워크 플란데른,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2010년 4월, 2011년 5월

http://www.ikvpaxchristi.nl/UK/below_thematic_security_and_disarmament_cluster_munition_home_stop_explosive_investments.htm, 2012년 4월 24일 확인.

ⁱⁱⁱ 확산탄금지연합, "CMC Policy Papers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2010년 5월,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0/06/3a-cmc-policy-papers.pdf>, 2012년 4월 24일 확인.

^{iv} 투자철회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

^v 핸드캡인터내셔널, "Fatal Footprint: The Global Human Impact of Cluster Munitions", 2006년 11월,

http://www.mineaction.org/downloads/1/Fatal_Footprint_HI_report_on_CM_casualties.1.pdf, 2012년 4월 24일 확인.

^{vi} ^{vi} IKV 팩스 크리스티, 네트워크 플란데른,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2009년 10월

http://www.ikvpaxchristi.nl/UK/below_thematic_security_and_disarmament_cluster_munition_home_stop_explosive_investments.htm, 2012년 4월 24일 확인.

^{vii} 로켓산Roketsan, "122 mm Artillery Weapon Systems", 로켓산 홈페이지(http://www.roketsan.com.tr/products_eng.php?id=3), 2011년 3월 23일 확인; L-3 커뮤니케이션스, 프로펀도에 보낸 2011년 2월 17일자 서면응답.

^{viii} 노베틱Novethic, 케이스 데 데포 그룹Caisse des Dépôts group, "2011 Survey. European Asset Owners ESG Perceptions", p. 4,

http://www.novethic.com/novethic/v3_uk/upload/ESG_Survey_2011.pdf, 2012년 4월 27일 확인.

^{ix} 노베틱Novethic, "Exclusions Normatives. Investisseurs responsables face aux entreprises controversies", p. 9,

www.novethic.fr/novethic/upload/etudes/etude-exclusions-normatives_20120120_vf.pdf, 2012년 4월 26일 확인.

^x 프로펀도Profundo, "Recent Financing of Producers of Cluster Munitions by Deutsche Bank. A Research Paper Prepared for Facing Finance", <http://www.facing-finance.org/wp-content/blogs.dir/16/files/2012/03/Deutsche-Bank-and-cluster-munitions-FF-120220.pdf>, 2012년 4월 26일 확인.